



칼빈과 언약신학

박 희 석

- | | |
|------------------|-------------------|
| I. 언약의 본질 | 3. 다윗 언약 |
| II. 언약의 일치성과 다양성 | 4. 새 언약 |
| III. 은혜언약의 역사 | IV 언약과 선택, 믿음의 교리 |
| 1. 아브라함의 언약 | V. 언약과 율법 |
| 2. 모세 언약 | VI. 결 론 |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은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언약신학자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대표적 학자인 라이리(Ryrie)는 언약신학은 초대와 중세교회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최근에 연구된 신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칼빈은 언약신학에 대해 아무 것도 가르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¹⁾ 밀러(Perry Miller)는 언약신학의 발전은 칼빈과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그의 신학으로부터 작별이라고 주장한다. 밀러는 언약신학이 칼빈에게는 없었는데 17세기 칼빈주의 조직신학자들의 산물이며 원

1) Charles Caldwell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 (Chicago: Moody, 1965), 17-21.

래 교리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²⁾ 밀러는 언약신학은 칼빈의 신학적 구조에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산물로 주장한다. 톨스톤(Holmes Rolston) 3세도 역시 칼빈은 언약신학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의 후계자들이 고안해낸 작품이라고 주장한다.³⁾

본 논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칼빈이야말로 언약신학자임을 밝힐 것이다.⁴⁾ 칼빈 신학교 후크마(Anthony Hoekema)는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반 영지주의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와 터툴리안(Tertullian)에 의해서 이미 언약에 관한 교리가 가르쳐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세교회에는 언급이 없다가, 16세기 칼빈과 함께 스위스 개혁자 부링거(Bullinger)에 의해 가르쳐졌다.⁵⁾」 칼빈은 언약교리에 관한 특별한 책을 쓰지 않았고 더욱이 기독교강요에서도 이에 대한 주제로 장을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에서 언약사상은 아주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다.⁶⁾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사상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조직신학의 구조를 만들었으며 성경 주석은 창세기부터 모든 신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후크

2) Perry Miller,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366

3) Holmes Rolston, III, *John Calvin versus The Westminster Confess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72), 23.

4) 칼빈의 언약신학에 대해 더욱 깊은 연구를 원한다면 Kil Ho Lee, "A Comparative Study of Covenant Theology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for Th.M Thesis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3). 22-52를 읽기 바람. 김인환, "칼빈과 언약," *총신대논총* 19 (2000), 44-70. 칼빈의 언약 신학에서 특히 행위 언약에 대해 잘 정리된 우수한 논문이다. 칼빈의 언약 신학에 관한 현대 신학자들의 논쟁도 함께 소개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5) Anthony Hoekema, "Calvin's Doctrine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Reformed View* 15 (1962), 1, 3.

6) Anthony A. Hoekem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135.



마(Anthony Hoekema)는 언약신학이야말로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⁷⁾ 릴백(Lillback)도 언약교리가 칼빈 신학 사상의 기초가 된다고 가르친다.⁸⁾ 그에 의하면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26회만 언급하고 있지만 언약이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최소한 273회나 사용하고 있다.⁹⁾ 칼빈이야말로 위대한 언약 신학자로서 그의 기독교강요에는 언약신학이라는 주제가 총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칼빈의 언약신학은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언약신학의 본질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인간과 교통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언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에는 첫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둘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이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믿고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두 분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은혜의 사랑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행복한 생활의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바른 생활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권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바른 생활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생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른 생활하도록 은혜의 선포가 더욱 풍성하게 하셨다.¹⁰⁾

7) *Ibid.*, 134.

8)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5), 236.

9) *Ibid.*, 222.

10)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Baker, 1984) Voll, 1:444.

칼빈에 따르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칼빈은 언약의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가르친다.」 칼빈이 가르치는 언약사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의무가 함께 묶여져있다.

칼빈의 언약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의 선택교리 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칼빈의 언약사상은 그의 선택교리에 바탕을 두고있기 때문이다.¹¹⁾ 칼빈은 두 단계의 선택이 있다고 지적한다. 창세기 17장 주석에서 칼빈은 두 겹의 선택 즉 민족단위의 선택과 그 안에 개인적 선택이 있다고 기술하고있다.

칼빈은 첫째 민족단위의 선택은 아브라함과 만든 약속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있다.¹²⁾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불러 내셨다. 또한 칼빈은 둘째 단계인 개인의 선택 교리는 첫째 보다 더 제한적인 선택의 작정을 소개한다. 이 두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칼빈의 사상에서 언약이란 이스라엘의 보편적 선택 (general election of Israel)과 제한적 택자의 소수를 불러내는 방편(means)이다. 보편선택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언약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므로 제한적인 개인의 선택에서는 제외 당한다. 칼빈은 보편선택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한 생활을 하므로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이 양자(養子)의 위치에서 버림을 당한다고 가르친다.¹³⁾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인 첫 단계인 보편적 선택권 내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

11) Lillback, 386.

12) Calvin, *Commentaries*, Vol. I, 448.

13) Calvin, *기독교강요*, 3권2장16절

게 하는 성령의 증생의 능력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보편적 언약이 유기받은 인류와 택함받은 소수의 중립 무대라는 뜻이다. 후크마는 “보편적 은혜를 받은 언약백성은 개인적 구원의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보다는 그 범위가 넓고 인류 전체보다는 좁은 범위에 속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약관계에서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후크마는 주장하기를 “칼빈은 보편적 언약에 속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언약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의무를 행할 때만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주권 강조) 가능하다”고 한다.¹⁵⁾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의무에 대해 그의 신명기 설교에서 더 분명히 가르친다.¹⁶⁾ 후크마는 다음과 같이 결론 맺는다. “칼빈에게 은혜언약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축복이다. 단순한 언약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반드시 참 믿음으로 언약이 요구하는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주권으로 그 사람을 특별은총인 영생으로 선택했다는 표(sign)다”.¹⁷⁾ 그러므로 칼빈의 언약 사상에서 인간의 의무가 강조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행위를 압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택함받아서, 경우에 따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의 능력인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 그러한 사람은 언

14) Hoekema, 150-151.

15) *Ibid.*, 151

16) Calvin's Sermon on Deuteronomy 10:15-17. Anthony Hoekema, *Ibid.*, 152.

17) *Ibid.*, 153.

약의 의무를 행하지 못한다.

칼빈은 언약사상을 세례교리에 적용시킨다. 칼빈에게 할례와 세례는 동일한 실체다. 칼빈은 “신약에 속한 우리는 할례를 통해 족장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표인 영적 약속들을 세례를 통해 받는다.”¹⁸⁾고 가르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언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과 같이 신약의 성도 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¹⁹⁾

유아세례 교리를 통해 칼빈은 “만약에 유대인의 할례가 언약의 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기독교인의 어린이가 받는 유아 세례는 구약에서 할례가 유대인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친다.²⁰⁾ 이 아이들은 비록 특별한총인 그들의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할지라도 유아세례를 통해 언약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칼빈은 “만약 그 아이가 구원받도록 선택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²¹⁾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그 아이는 후일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특별한총을 받아 그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를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일생을 보낼 것이다. 칼빈은 교회가 베푸는 세례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할례가 보편적 은혜를 받은 표시가 되는 것처럼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처럼 신약의 보편적 은혜의 표로 이해하고 있다. 구약의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신약의 세례가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은 아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신약에서 세례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만이 그 구원이 완성된

18) Calvin, *기독교강요*, 4권16장3절.

19) *Ibid.*

20) *Ibid.*, 4권16장5절

21) *Ibid.*, 4권16장21절.

다. 물론 이때도 인간이 자발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칼빈 언약교리의 본질은 구원에서 불변하는 신적 선택의 확실성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여 언약으로부터 떨어지는 역사와 개인의 구원을 취급하는 이중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²²⁾

II. 언약의 일치성과 다양성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재세례파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구약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주장을 칼빈은 반대하였다. 칼빈은 강요에서 “언약은 족장들이 맺은 것과 신약의 성도들이 맺은 언약의 본질과 실체는 동일하며 하나의 언약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그 양태가 다를 뿐이다”고 했다. 그의 모든 저작을 통해 칼빈은 언약의 일체성을 강조한다. 칼빈에 따르면 구속사에서 하나의 은혜언약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언약의 본질이 변형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칼빈은 언약의 기초는 그리스도로 믿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근본 바탕은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언약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 22:18)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앞으로 오실 것이란 약속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고 성취된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를 떠나 어떤 방법으로도 보증된바 없다.²⁴⁾

22) Lillback, 387.

23) Calvin, *기독교강요*, 2권10장1절.

24) Calvin Commentaries, Vol. VIII, 293.

칼빈에게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다. 그리스도를 떠나 구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²⁵⁾

비록 칼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시행되는 양태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그 언약의 본질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고 가르친다. 언약이 시대에 따라 변형되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칼빈은 믿는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시대에 따라 다양한 적응을 위해 언약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형편에 맞게 하기 위해 표현을 다양하게 바꾸셨다.²⁶⁾ 칼빈에 의하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지 약속의 본질이 아니다.

칼빈은 구속사에서 언약의 본질은 둘이 아닌 오직 하나 뿐임을 강조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끝없이 영원하다고 언급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만약 우리가 가장 훌륭한 믿음의 표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려한다면 그의 신앙은 수 만년 동안 동일한 하나임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족속임을 알아야한다.²⁷⁾

칼빈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것이 첫 번 것과 반대 개념에서 “새 것”으로 불리울 수 없다고 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외에 어떤 다른 언약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⁸⁾ 그러나 형식 (form)과 방법 (manner)에서 옛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부른다.²⁹⁾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문화와 형편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에 맞게 다양

25) *Ibid.*, 190.

26) 칼빈, *기독교강요*, 2권10장13절.

27) *Ibid.*, 2권10장11절.

28) Calvin, *Calvin's Commentaries*, XIX. ii:34

29) *Ibid.*

한 방법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도 분명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하였다.

III. 은혜언약의 역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믿는다. 천지와 아담의 존재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창조주와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믿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언약은 한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장구한 역사의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아담과 함께 그의 후손들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받았다. 물론 칼빈은 아담에게 은혜언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아담과는 행위언약을 맺었다고 강조한다. 칼빈의 은혜언약에 의하면 다른 어떤 언약보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특별히 중요하다.

1. 아브라함의 언약

칼빈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주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며, 둘째는 권고와 훈계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록하고 정직한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⁰⁾」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할 의무가 있다.

30) Calvin, *Commentaries*, Vol. II, 444.

칼빈에 따르면 “할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여,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여 나라들이 일어나며 열왕이 나타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여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는 증거라(창17:9~14)”하였다.³¹⁾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증하는 증표가 된다. 칼빈은 할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외적 수단으로서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³²⁾

신약 시대의 새 언약에서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갈 3:26)고 하였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과 한 가족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는 구약의 할례보다는 더욱 강하고 밀접한 뜻을 나타낸다. 칼빈은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가 되는 외적인 표시라고 가르쳤다.³³⁾ 칼빈에 의하면 할례와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와 새 언약의 세례에서 다른 요소는 표현과 예식의 집행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칼빈은 “할례와 세례의 의식이 행하여질 때 외부적 형식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례의 힘과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이 되는 내적 신비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³⁴⁾ 할례와 세례의 성례는 내용과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³⁵⁾ 그러므로 신약의 새 언약은 근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대에 맞게 변형된 것일 뿐이다.

31) *Ibid.* 451

32) *Ibid.* 453.

33) Calvin, *기독교강요*, 4권16장4절.

34) *Ibid.*

35) *Ibid.* 4권16장6절.

2.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과 연결된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출발하여 더욱 발전시킨다.³⁶⁾ 언약신학을 연구하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세 언약은 행위언약으로 가르친다. 칼버거(Mark Karlberg)는 언약신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비평적인 언약 신학자들은 ‘자연언약(covenant of nature)’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것으로 해석하였다. 행위언약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자연언약인 모세 언약과 연결되었음을 가르친다”고 하였다.³⁷⁾ 이렇게 가르친 유럽 신학자들의 해석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였다. 모세 언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 밖의 모든 인류는 죽음과 죄의 속박에 묶여있다는 것을 가르친다.³⁸⁾

칼빈에 의하면 모세 언약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적용하신 은혜의 언약이다. 모세 언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칼빈은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였다고 한다.³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과 그들의 후손들이 지키겠

36) Walter C. Kaiser, *Toward o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 1978), 82-87과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247-290을 참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가능하다.

37)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s of the Mosaic Covenant"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LIII, Fall 1980, No. 1, 4.

38) *Ibid.*, 5.

39) Calvin, *Commentaries*, Vol. II, 362.

다고 약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과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⁴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고 뽑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방 민족과 차별되고 다르다는 증거로 영적인 할례 받은 것을 나타내는 외부적인 표시로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셨다.⁴¹⁾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부분은 상황적이다(conditional).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성취되어진다.⁴²⁾ 칼빈은 그의 레위기 26:3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의 기능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⁴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축복과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언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언약적 심판이 그들 위에 저주로 내려지게 되었다.

칼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율법의 교육적(pedagogical use of law) 용법과 구약의 모형적 구조(typological system)를 함께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⁴⁴⁾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본질과 특성의 차이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구약에서

40)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255-258.

41) *Ibid.*, 358.

42) *Ibid.*, 313.

43) Calvin, *Commentaries*, Vol. III, 210.

44)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14.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에 초점이 있다”고 하였다.⁴⁵⁾ 칼빈은 율법의 기능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가르친다.⁴⁶⁾ 이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적 그림자 역할의 부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

칼빈은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른 이유는 율법은 성도가 자신의 생활이 어떠한 지를 비추어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 한다. 성도들이 율법의 거울로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 본다면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 지를 깨닫게 된다.⁴⁷⁾ 성도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⁴⁸⁾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바른 생활을 해야함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칼빈은 모세의 율법에는 교육적 용법이 있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모세 율법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⁴⁹⁾ 모세 언약의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과는 분명하게 다르다.⁵⁰⁾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여러 방편 가운데 하나이다.

45) 칼빈, *기독교강요*, 2권9장4절

46) *Ibid.*, 2권9장3절.

47) *Ibid.*, 2권7장7절.

48) *Ibid.*, 2권7장6절.

49) *Ibid.*, 2권10장2절.

50)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16.

3.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언약은 하나이나 환경에 따라 그 적용 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다를 뿐이다.⁵¹⁾ 칼빈도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개이며 그것은 불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가르쳤다.⁵²⁾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모세와 다윗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다양하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을 통해 이 땅위의 세상에서 성취되도록 하셨다.⁵³⁾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하셨다. 칼빈에 의하면 다윗 언약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관점은 무엇보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이다.⁵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세워진 왕국은 영원한 메시아 나라의 모형이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 되는 구원의 성취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강하게 나타내셨으나 다윗 왕국은 하나님 왕권의 예표론인 증표로 기여하였다. 유다를 통치한 다윗 왕조는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메시아적 구원자의 실재를 그림자 형태로 나타내는 모형이었다.⁵⁵⁾

51)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166-170.

52) Mark W. Karlberg, "Reformed Interpretation of the Mosaic Covenant," 16.

53) Calvin, *Commentaries on Psalm* 89:25.

54) 칼빈, *기독교강요*, 2권6장3절.

55) Calvin, *Commentaries*, Vol. IV, 2:11.

4. 새 언약

칼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뿐이다.⁵⁶⁾ 칼빈은 그의 램31:31주석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새 언약은 처음 세워진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영원하며 한 개뿐이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세운 언약의 본질은 모두 동일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에 맞게 갱신되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후일 모세를 통해 재확인한 그 언약 외에 다른 어떤 언약도 만드신 일이 없다고 한다.⁵⁷⁾」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일컬어진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그 언약들의 형식과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과 실제적 본질에서는 어떠한 변화나 차이가 없다. 새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르쳤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변형이다.

히브리서8:6 주석에서 칼빈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성도의 믿음과 희망은 동일하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히8:10을 주석하면서 새 언약의 세 요소는 값없는 사죄의 은총, 마음의 내적 변혁,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조명으로 설명하였다.⁵⁹⁾ 예레미야31:34 주석에서 칼빈은

56) Calvin, *기독교강요*, 2권6장2절.

57) Calvin, *Commentaries*, Vol. X, 2:127.

58) *Ibid.*

59) Calvin, *Commentaries*, Vol. XXII, 1:188.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옛 언약에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미하게 나타내셨으나, 새 언약하의 신약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하므로 기쁨이 넘치도록 하였다. 언약대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의 보자기가 열리게 하셨다.⁶⁰⁾

칼빈은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재 세례파와 같이 과격하게 성령만 강조하는 주장을 배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의 지시만 강조하면서, 많은 오류를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다. 칼빈은 16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과격한 집단들을 강한 어조로 비평하였다. 칼빈은 그들이 심각하게 오류로 뺄어진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아 도취에 빠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무리들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들의 다수는 정상적 교육을 받지 않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⁶¹⁾ 칼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의 본질과 실재는 오직 한 개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구약 초기 성도들과 맺은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희미하게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희미하던 언약의 실체가 신약 성도들에게는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IV. 언약과 믿음, 선택교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즉 선택받지

60) Calvin, *Commentaries*, Vol. X, 2:134.

61) Calvin, *Commentaries*, Vol. X, 135.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들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 의 구원을 받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시는가?

칼빈에 의하면 선택은 언약의 결과로 해석한다. 칼빈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결과임을 말한 후,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하신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한다(시 105:42)”⁶²⁾.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을 영원한 작정이라 부르고, 이 작정에 의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개개인에게서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한 예로 보여주셨는데, 다른 백성은 제외되고 마른나무와도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서 한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칼빈은 가르친다.⁶³⁾ 모세가 후세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사랑하셨고, 그 후손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라(신4:37)”라고 가르쳤다.⁶⁴⁾ 칼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될 때에는 이 거저 주신 언약의 원칙을 상기했다”고 하였다.⁶⁵⁾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으로 선택된 근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칼빈은 구원은 구약 뿐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곧 창세 전에 우리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엡

62) Calvin, 기독교강요, 2권21장5절.

63) *Ibid.*

64) *Ibid.*

65) *Ibid.*

1:4~5)”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성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친다.⁶⁶⁾ 칼빈은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심을 따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결정을 내리실 때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⁶⁷⁾ 그리고 칼빈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요6:44~45, 13:18, 17:6, 17:9) 해석한 후 선택의 창시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였다.⁶⁸⁾

칼빈은 기독교강요 24장에서 제목을 “선택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확인된다”고 잡았다. 그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라고 가르친다. 그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고”(8:30)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미 어느 정도 선택에 참여한 자 라고 하였다.⁶⁹⁾ 칼빈은 그리고 부르심의 방법은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이라 하였다.⁷⁰⁾ 성령의 사역이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킨다.

칼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사역을 의지하고 믿게 하는 일이다. 성령의 중심되는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신다.⁷¹⁾ 칼빈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 마음에 인 치신다.⁷²⁾

66) *Ibid.*, 2권22장2절.

67) *Ibid.*, 2권22장3절.

68) *Ibid.*, 2권22장7절.

69) *Ibid.*, 2권24장1절.

70) *Ibid.*, 2권24장2절.

71) *Ibid.*, 3권1장4절.

칼빈에 의하면 참다운 믿음은 이해(comprehension)가 아닌 확실한 지식(knowledge)이 요구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은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사물을 깨닫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믿음은 감각적 요소를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초월해야 한다. 비록 마음이 믿음에 도달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느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는 그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체의 능력으로 지각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바울은 아름답게 묘사하였다(엡3:18~19). 그가 말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던지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주 인식이라 부르고, 요한이 지식이라 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요한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언급한다(요일3:2). 그들은 확실히 이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바울은 "우리가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5:6-7). 이런 말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⁷²⁾

72) *Ibid.*, 3권2장7절.

73) *Ibid.*, 3권2장14절.

칼빈에 의하면 믿음은 이해보다는 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이해보다 훨씬 크다. 칼빈은 믿음의 확실성을 강조한다.⁷⁴⁾

칼빈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도 의심과 시험(temptation)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한다고 가르치면서 의심의 기미가 없는 확신이나 불안의 습격을 받지 않는 확신을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자기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우는 믿음이다”고 기록하였다.⁷⁵⁾ 칼빈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안식을 얻고, 목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며 사람의 공적이나 업적에 의존되지 않는다.

믿음은 말씀을 떠나 발생하지 않는다. 칼빈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고 강조한다.⁷⁶⁾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없으나, 일단 그에게 이끌려 나가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높이 들려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게 된다. 그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예리한 이해력을 얻게 되어 옛날에 보지 못하였던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 또 인간적인 이해력도 이같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참 맛을 느끼게 되어,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 설명하였으나(눅 24:27)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이 귀로 들었

74) *Ibid.*, 3권2장16절.

75) *Ibid.*, 3권2장17절.

76) *Ibid.*, 3권2장33절.



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불어넣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 오실 필요가 있었다. 천하를 비취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 되지만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는 원래 모두 눈이 멀었다. 따라서 성령이 내면적 교사가 되어 우리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 없다.⁷⁷⁾

칼빈이 이해하는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죄인에게 적용하는 통로가 된다.

「칼빈은 회개를 믿음의 열매로 믿었다.」 회개와 죄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인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이다.⁷⁸⁾

복음 선포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은 죄인이 사탄의 압박과 죄의 멍에와 타락한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데 전력하게 된다.⁷⁹⁾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에 의하면 회개는 믿음을 앞서지 않고 믿음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게된다.⁸⁰⁾ 즉 믿음에서 회개로 넘어가게 된다. 칼빈은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믿음에서 회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동시에 회개와 믿음은 함께 연결되고 함

77) *Ibid.*, 3권2장34절.

78) *Ibid.*, 3권3장1절.

79) *Ibid.*

80) *Ibid.*

게 묶여있다고 한다.⁸¹⁾ 칼빈은 믿음과 회개는 구분은 된다할지라도 결코 분리할 수는 없다고 확신하였다.⁸²⁾ 믿음과 회개는 항구적인 줄로 묶여있지만, 서로 결합할 필요는 있어도 혼돈해서는 않된다.⁸³⁾

칼빈은 회개의 정의를 “우리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된다”고 하였다.⁸⁴⁾ 그는 회개를 세 가지 제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회개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이 옛 성질을 버리고 갱신하여 새롭게 변모할 것을 요구한다.⁸⁵⁾ 둘째,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회개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언급할 때가 많다.⁸⁶⁾ 셋째,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부분으로 성립된다.⁸⁷⁾

칼빈에 의하면 회개가 바로 중생인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중생에 의해 아담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⁸⁸⁾ 그리고 이 회개는 한 순간이나 하루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고, 죄책을 없이하여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결에 이르게 하신다.⁸⁹⁾ 우리가 위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칼빈은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 하였으며, 회개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중생이라 하였다. 따라서 회개와 중생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이다.

81) *Ibid.*

82) Calvin, *Commentaries on Acts of Apostles*, 20:21.

83) *Ibid.*, 3권3장5절.

84) *Ibid.*

85) *Ibid.*, 3권3장6절.

86) *Ibid.*, 3권3장7절.

87) *Ibid.*

88) *Ibid.*, 3권3장9절.

89) *Ibid.*

V. 언약과 율법

칼빈이 가르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칭의와 사죄의 축복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지켜야할 의무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칼빈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의도되지는 않았음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율법에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악한 행위를 제한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⁹⁰⁾ 종교개혁의 불꽃을 먼저 밝힌 루터(Luther)는 첫 번째 기능인 죄를 저주하는 요소를 강조하지만⁹¹⁾, 칼빈은 세 번째 기능인 성도에게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기능을 강조한다.⁹²⁾ 칼빈은 기독교인들의 생활 안내와 행위의 규범으로서 일생동안 율법이 필요하다는 강조하였다. 칼빈은 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할 지라도 그 율법이 성도들 생활의 불변하고 영원한 규범이 된다고 생각하였다.⁹³⁾

구속사에서 율법은 칼빈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칼빈은 율법을 여러 종류의 뜻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⁹⁴⁾ 니셀(Niesel)은 칼빈이 가르친 율법의 바탕은 언약적 율법으로 이해하였다.⁹⁵⁾ 「칼빈은 율법이 성도의 바른 생활을 위한 안내서 역할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도 포함하고 있다고

90) *Ibid.*, 2권7장1-12절.

91) Martin Luther's Commentary on Galatians 3:9.

92) *Ibid.*, 2권7장12절.

93) Calvin, *기독교강요*, 2권7장13절.

94) 칼빈이 이해한 율법의 의미를 John McNeill은 다음 3종류로 분석하였다. ① 모세 오경 전체 ② 선택받은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도덕법 즉 십계명 ③ 여러 종류의 시민법, 민법, 그리고 의식법을 뜻한다. *기독교강요*, 2권7장1절, footnote 1.

95) Willia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1980), 94.

믿었다.⁹⁶⁾」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뜻에 순종하여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 칼빈은 그의 언약 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기가 택한 백성이 지켜야할 율법적 순종을 함께 묶어 두었다. 그는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운명론과 펠라기우스주의 양극단을 피하였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 언약에 의해 일생 동안 율법을 그의 얼굴에서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⁹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인격이며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투영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음 받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⁹⁸⁾

인간에게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가? 칼빈은 골3:10, 엡4:24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본성이라 하였다.⁹⁹⁾ 칼빈은 인간이 창조 시에 소유하였던 초자연적 은사들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성결과 의로움을 바라는 열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명료한 지성, 적절히 통제된 감정, 창조주가 부여한 재능, 옳고 그름을 구분하

97) Lillback, 340.

98) 김인환, “칼빈과 언약,” 칼빈의 언약 신학에서 특히 행위 언약에 대해 잘 정리된 우수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김 교수는 칼빈의 아담의 창조과정과 선악과 언약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은혜 언약과 함께 행위 언약을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김 교수의 논문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주석들을 인용하면서 아담의 창조과정과 선악과를 먹지말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칼빈이 가르친 행위언약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99) Calvin, 기독교강요, 2권2장2절.

는 도덕적 감수성과 양심도 그 인격에 포함된다.¹⁰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피조물 인간은 자연히 창조주와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약관계에서 만드셨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후손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죄와 사망이 전 인류에게 임한 것을 가르친다. 출생하지 않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 언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은 언약관계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도 언약이다. 창조주가 에덴 동산에서 땅과 모든 피조물을 아담의 손에 위임한 것은 아담이 다른 피조물과 언약적 관계에서 작은 주인으로서 관리자가 되었다.¹⁰¹⁾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도덕적 본성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도록 하셨다.¹⁰²⁾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심어진 도덕적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록이며, 자연법의 선언이고,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다.¹⁰³⁾ 「인간의 양심에 심어진 도덕적 본성은 원초적이고 창조된 대로의 선을 의미하며 어떠한 악이나 죄는 자연스럽지 못하다.¹⁰⁴⁾」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양심의 소리만 순종하면서 생활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양심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도덕법이 새겨져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

100) Calvin, *기독교강요*, 1권15장4절.

101) Fred H. Klooster, "The Biblical Method of Salvation: A Case for Continuity", ed. John S. Feinberg,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 (Westchester: Crossway Books, 1988), 140.

102)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1963), 333.

103) Calvin, *기독교강요*, 4권20장16절.

104) David C. Jones, *Biblical Christian Ethic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73.

하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인간은 그가 상관하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반영하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도덕적 완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¹⁰⁵⁾ 칼빈은 이 도덕법을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활해야 하는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the true and eternal rule of righteousness)으로 정의하였다.¹⁰⁶⁾ 도덕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칼빈주의자 버자스(Burgess)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신성의 복사본이므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⁰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VI. 결 론

비록 칼빈이 그의 저술에서 별도의 장을 통하여 언약신학에 대한 글을 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기독교 강요는 언약신학이라는 주제가 맥을 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칼빈은 훌륭한 언약신학자라 할 수 있다. 그는 행위언약은 아담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음을 가르치지만 은혜언약이 아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칼빈은

105)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vol 1. (banner of Truth Trust: 1977), 196.

106) Calvin,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37-38.

107) Anthony Burgess, *Vindiciae Legis: Or A Vindication of the Moral Law and Covenant, From the Errours of Papists, Arminians, Socinians, and More Especially Antinomians* (London, 1646), 142. quoted in John Von Rohr,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Scholars Press: Atlanta, Georgia, 1986), 38.



은혜언약에서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방법과 표현으로 그 후손들에게 제시되었다고 칼빈은 가르쳤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일하며 한 개 뿐이다. 구약이나 신약 성도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은혜언약이다. 그 결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의 새 언약 모두 하나의 언약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